

<화법과 작문>

화작은 문제의 구성이나 유형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번 6모도 안정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독서와 문학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화작에서 문제를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작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기출 중심으로 규격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화법의 경우, 논제와 그 논제의 방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 정보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작문 같은 경우 조건 충족, 자료 활용, 글쓰기 계획, 고쳐쓰기 등 여태 출제되었던 정형화된 유형별 풀이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또한 화작에서 가끔 한두 문제 정도 혼란을 유도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난이도 자체를 어렵게 올린다기보다는 묻는 방식을 살짝 바꾸는 등 당황함을 유도하는 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침착함만 유지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유형의 측면에서 기존과 크게 다르게 느낄 만한 지점은 많지 않았지만, 36번과 42번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를 이용해 시간을 많이 쓰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의 경우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에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은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하고 많은 기출문제나 사설 문제들을 시간을 재면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선택과목에 시간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어떤 문제에서 시간을 들이고 어떤 문제에서 시간을 절약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피드백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실한 선지가 나오면 나머지 선지들을 읽지 않는 방법, 화법과 작문 기출문제들의 주요 출제 포인트들을 체화한다면 시간을 아껴야 하는 문제들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는 적당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6평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암기했다는 것만으로 확실하게 잘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느꼈습니다. 개념 자체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선지에 대한 분석력 또한 갖추어야 당황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2학년도 6평에서 중세 국어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되지 않았었지만, 22학년도 수능과 이번 6평에서도 중세 국어가 등장한 것을 보면 앞으로 중세 국어는 꾸준히 출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1번과 같이, 언어와 매체가 융합된 문제가 22학년도 수능에 이어 6평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22학년도 대비로 출제된 학평, 평가원 문제들과 사설 문제들을 통해 매체 자료에서 사용되는 문법 요소들을 꾸준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 융합 문제는 높임법, 의존 명사, 어미, 보조 용언 등 다양한 문법 개념이 모두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44~45번을 통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라는 매체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가원 문제에 실리는 표현들이다 보니 문제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수능에서 최신 매체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과서에서 충분히 공부하기 어려운 매체가 나온다면 지문과 <보기>를 통해 정오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될 것 같습니다. 지문과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고 선지에도 지문과 자료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지 확인하는 연습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서>

이번 6월 모의고사의 국어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평이했으며, 몇몇 문제를 제외하면 모의고사 대비가 잘 되어있는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 파트의 경우,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차분히 생각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M사 기준 14~17번 사회 지문 4문제 모두 정답률이 매우 낮게 측정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다수의 학생이 사회 지문까지 해결할 시간은 없었기에 이러한 정답률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14번 문제부터 정답률이 13%인데, 왜 이런 정답률이 나왔는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3] 인문

‘어휘력 발달과 매튜효과’에 관한 지문입니다. 1~3번 지문이 2022학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도의 지문 또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었고, 이번 6월 모의고사도 그랬습니다. 지문의 난도는 매우 쉬웠고, 1번 문제가 정답률 61%로 가장 낮았는데, 1문단을 제대로 읽기만 했어도 1번 선지를 쉽게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1문단 첫 번째 줄에서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9] 인문

‘육가의 사상과 조선의 역사서 편찬’에 관한 지문입니다. 2021학년도 6월에 처음 출제된 (가), (나) 형 지문으로, 지문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은 기초가 이번 6월 모의고사에도 이어졌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는 7번이었습니다.(29%) (가)와 (나) 지문의 학자들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였는데, ㄴ은 (가)와 (나) 모두 해당하지 않은 선지였고, ㄷ의 경우 (나)에서 옛 국가인 ‘고려’에서 불교 사상의 폐단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사상적 공백이 없었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10~13] 과학

‘비타민 K의 역할과 칼슘의 역할’에 관한 지문입니다. 2문단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과학 용어가 많이 있고, 그 개념들 간의 인과 과정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는 13번으로, 38%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2문단에 제시된 여러 과학 개념들 간의 인과관계를 이해했으면 선지를 지우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 자체의 난이도보다 지문의 난이도가 높았던 것이죠. 선지 하나하나 해설을 간단히 해보자면

- ① 4문단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라는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 선지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 ② 1문단 ‘혈액 응고는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혈전)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라는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 선지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 ③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이 결합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은 비타민 K입니다. (2문단 4번째 줄) 따라서 헤파린으로 결합을 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트롬빈’의 역할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꾸는 것)
- ④ (가)를 투여할 경우 비타민 K가 활성화되지 않아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다)를 투여할 경우 트롬빈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⑤ (나)를 투여할 경우 피브린이 분해가 되고, (다)를 투여할 경우 트롬빈이 작용하지 않아 피브린이 만들어지지 않아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14~17] 사회

‘이중차분법’에 관한 지문으로, 4문제 평균 정답률이 33.75%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일치 불일치를 묻는 14번 문제의 정답률이 무려 13%, 단순 어휘 문제인 17번 문제의 정답률도 55%로, 전체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 통계로 결론을 내리긴 어려우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 부족으로 4문제 모두 제대로 풀지 못한 학생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1.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을 음미하면서 읽었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 각 문장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문장이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읽는 연습이 되어 있었다면 쉽게 넘길 수 있었던 선지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지문을 읽어 내려갔다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썼겠지요. 최근 수능 국어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말이 많은데, 가장 기본자세는 항상 ‘이 문장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태도는 이전 수능 때부터 항상 강조되어 왔지만, 최근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출제 경향이 바뀌었다며 이전 기출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기출을 풀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하고, 이 문장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최근 수능 국어에서 ‘추론’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맥락인데, 이제는 문장을 봤을 때 1차적으로 보이는 정보 1과 그 아래에 있는 정보 2까지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2는 문장을 읽으면서 물음표를 계속 던지는 생각을 해야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가령, 이번 경제 지문 1문단의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라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에 동그라미를 치고 별생각 없이 넘어갔을 텐데, 사실 이 문장은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때 ‘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한다는 정보 2가 숨어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를 생각하면서 읽었다면, 바로 아래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문장을 그냥 넘기지 않고, ‘두 집단’에서 멈춰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지문을 읽는 동안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고, 바쁘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 내려갔다면, 오답률이 90%에 달하는 14번 문제에서 1번 선지를 보고 ‘시행집단 사건 전후 변화가 아니라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이 필요한 건데...!’라는 답을 내렸을 겁니다.

2. 그런데, 문제를 맞히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방법대로 지문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14번 문제 1번 선지를 보고 바로 답을 확신했다면 좋았겠지만, 해당 문제의 오답률은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맞혀야 했을까요.

14번 문제에서 1번 선지를 고르지 않은 학생들은 1번 선지를 읽고 큰 고민 없이 ‘아, 맞겠지’라고 생각하며 선지를 넘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번 선지까지 다 내려간 후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4번 문제의 2번~5번 선지는 모두 지문 속의 확실한 근거를 기준으로, 혹은, 지문 속에서 강조되었던 내용

을 기준으로 모두 확실히 '맞다'고 체크할 수 있는 선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번 선지까지 읽어 내려간 우리는 큰 고민 없이 맞다고 체크했던 1번으로 다시 돌아가 고민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당연히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긴 선지로 다시 돌아가서 시간을 투자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답의 근거를 찾아야 하고, 위에서 설명했던 과정을 거쳐 '시행집단의 사건 전후가 아님'을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3. 3점짜리 문제가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배점에 따라 문제를 무시하거나,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4문단을 읽으면서 '통계적 유사성'과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비교되고 있는 부분만 잘 파악했다면 16번 4번 선지를 보고, 바로 답으로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번 문제의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지문을 읽으면서 물음표를 던지는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탓일 수도 있지만, 지문의 첫 번째 문제라는 이유로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모두 읽었는데도 답이 보이지 않았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긴 선지'로 돌아가, 시간 투자하기를 꺼려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지문을 읽는 이유는 머릿속에 정보를 남기고, 그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함이 맞지만, 답이 헛갈릴 때에는 지문으로 돌아가, 정확한 답의 근거를 찾고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보는 목적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문제 풀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학>

문학의 경우 비문학보다 EBS 연계 체감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평상시 문학 문제를 감으로 풀던 학생들의 경우, 즉, <보기>나 지문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지 않던 친구들은 문제를 풀 때 모든 선지가 맞아 보이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혹시 시험을 볼 때 이와 유사한 느낌을 받았더라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찾아서 선지를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차례에서 28~31번, 그중에서도 31번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5번을 답으로 고르지 못했더라면 2번이나 4번을 고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렇게 오답으로 가는 이유로는 문학 개념에서 “시선”과 “시점”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입니다. 미스터 방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 있지만,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여러 인물의 시선으로 쓰여 있다고 하지요. 즉 시선은 한 개인의 처지를 대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소설이 전체적으로 전지적 작가의 시점을 쓰인 것은 맞으나, 그 속에서 누구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양하게 가능한 것이지요!

또한, 2번을 고른 친구들이라면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감정을 체크하는 연습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군중들이 호화판 속에 있는 물건들을 보게 되었을 때 놀람과 분노라는 감정과 연결될 수 있고, 따라서 현장은 들뜬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팁을 드리자면, 선지에 쓰인 감정이 헛갈릴 때 반대의 개념어나 감정을 그 위치에 넣어봄으로써 판단을 한다면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선지들이 조금은 더 명확하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호화판 속에 있는 물건들을 보았을 때 놀람과 분노 (->차분함) 현장은 들뜬 분위기(-> 침체된 분위기) 이렇게 보면 선지가 상당히 어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따라서 혹시라도 2번 선지에서 고민이 된 친구들은 이렇게 선지를 바꾸어 보며 적어도 바로 틀리거나 맞다고 판단하지 않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34번 문제의 정답 선지인 1번을 분석해 봄으로써 평가원의 현재 국어 문학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번 선지에서는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라는 표현을 통해 공동체의 터전이 확장되어 순수성을 지켜나가려고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개지로 가자는 발언이 전통 농경문화의 순수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점에서 서술된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시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기에서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고 하였듯이 작품 속 화자는 현재 공동체의 터전이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되찾기를 바라는 것이지 직접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터전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는 투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개지’라는 개척되지 않은 공간을 뜻하는 어휘가 사용된 것, 보기와 작품에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면 ‘가자’를 과거의 특성으로의 복고가 아닌 주체의 물리적 이동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 문학 파트의 마지막 문제이자 보기 문제였다는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문제의 정답률을 낮춘 것으로 파악된다.

지문과 보기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선지를 빠르게 읽고 지나가버리면 세세한 표현을 몽뚱 그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러한 평가원의 트렌드에 맞추어 학습과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총평 및 계획>

제시문의 난이도도 낮아지고 길이도 짧아졌습니다. 이번 문제들을 풀면서 지문을 비교적 쉽게 읽어냈음에도 선지를 확실하게 소거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드러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선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최소한 선지에 나온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 지문의 어떤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지 정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실력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혈액과 이중차분법 모두 ebs에서 연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연계 교재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본인만의 독해 및 문제풀이 방법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그냥 평소대로 읽고 풀었으면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학 역시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외적 준거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엄청난 킬러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쉽게만 느껴졌던 독서 파트의 내용 일치나 어휘 문제의 난이도가, 문학 파트의 문학 개념어로 구성된 표현상 특징이나 서술상 특징의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3점짜리 외에도 정확하면서 시간 내에 풀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번 6평 시험지를 다시 풀어보고, 본인이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맞힐 수 있었던 문제와 시간이 더 주어지더라도 틀렸을 문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상당히 무난한 시험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상위권 아래인 많은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습했던 독해 방법이 통하지 않았던 학생도, 뚜렷한 본인만의 독해 방법이 없는 학생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 문제를 정확하게 풀지 못한 학생도 이번 6평을 기회 삼아 더 단단한 기반을 다지길 바랍니다.